자전거 인프라 확충…친환경 여수 조성 순조

기찻길·산악·해안 자전거 도로 등 기반시설 인기만점
무료 자전거 교육·공영자전거 무료 대여 이용률 높아

명품 자전거도로 개설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여수시가 무료 자전거교육 등 인프라 확충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 내 친환경 무료 자전거교육은 '여수YMCA두바퀴세상', '여수MTBschool' 등 자전거동호회를 중심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시 도로과(061-659-4569)로 문의하면 된다.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인 여수는 여자만 해안 자전거도로와 전라선 옛 기찻길 자전거도로, 산악자전거코스 등 자전거 라이딩을 위한 기반시설이 훌륭하다.

지난 7월 개통한 소라면 사곡리 궁항마을과 달천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등 천연의 풍광을 간직한 자전거 길이 속속 열리고 있다.

시민·관광객과 라이딩족을 매료시키는 여수의 명품 자전거길은 ▲오동도~여자만 코스 ▲오동도~화태대교 구간 ▲가사리방조제~화양면 공정리 구간 등 3개 코스로 구성됐다.

오동도~여자만 코스는 오동도를 출발, 당두~넘너리~히든베이호텔~성본교차로~여자만(복촌)으로 이어지는 41.3㎞ 구간이다.

오동도를 비롯해 진남관, 여수해양공원, 낭만포차, 이순신광장, 돌산대교, 소호동동다리 등 볼거리가 즐비하다.

특히 여자만 구간은 붉은 저녁노을을 따라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명품 해안 자전거도로로 입소문이 나 동호회원들이 꾸준히 라이딩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오동도~화태대교 구간은 오동도에서 거북선대교~도실삼거리~화태대교~송시삼거리까지 이르는 25㎞ 코스다.

거북선 대교와 여수해양케이블카, 돌산공원에 무슬목 등 바다와 어우러지는 풍광을 접할 수 있어 여수 라이딩의 백미로 꼽힐만하다.

가사리 방조제부터 감도~이목~화양면으로 연결되는 19.4㎞ 구간은 고즈넉한 어촌 풍경을 따라 드넓은 갯벌과 올망졸망한 섬들의 어우러짐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와 함께 여수시가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도 30% 넘게 급증했다.

시에 따르면 11월 기준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30곳, 자전거는 345대를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까지 이용건수는 9만467건으로 지난해 7만1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여수시가 지난 8월 옛 기찻길 공원 내 대여소 3곳을 추가한 후 하루 평균 250회의 이용건수는 300건으로 증가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앞으로도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무료 교육은 물론 신규도로 개설 땐 자전거도로를 함께 조성해 자전거도로 확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관광객들이 함께 아름다운 여수에서 자연과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가 명품 자전거도로 개설과 무료 자전거교육 등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천연의 풍광을 살린 자전거길에서 시민들이 라이딩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국토부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

여수시가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뛰어난 측량 능력을 선보이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시는 지난 14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2018년 제1회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했다.

경진대회는 측량기계를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의 적정여부, 성과결정의 신속성·정확도, 장비 운용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지적측량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여수시 공무원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지적 측량성과를 결정했고 뛰어난 측량장비 운용능력을 보여 최우수상의 영광을 얻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 측량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을 통해 관련 민원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기관 선정

여수시는 전남도의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시상금은 3000만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시책을 징수율 등 6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시는 체납자의 신용정보와 체납사유 등 빅데이터를 활용, 맞춤형 징수전략을 추진한 결과 정리목표액 38억970만 원 대비 11억470만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수시 관계자는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적극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회복과 긴급구호를 지원하는 등 사람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전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내일~22일 여수 진남체육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제13회 전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이 여수시 진남체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여수시체육회, 전남 회원종목 단체가 주관한다.

경기종목은 게이트볼과 궁도, 그라운드 골프, 산악, 배드민턴, 체조, 정구, 탁구 등 8개다.

대회 개회식은 첫날 오후 1시30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 지역 도·시의원, 선수단, 임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현장에는 새끼 꼬기, 집신 삼기 체험부터 건강 상담, 스포츠마사지 등을 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설치된다.

이번 대회와 병행해 20일부터 22일까지 경북도체육회 어르신동호인 70여명과의 우호교류 행사도 함께 열린다.

여수시 관계자는 "출전선수들이 서로 격려하고 친목을 다지는 건강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열정을 적극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창사66주년 광주일보

시민계획단 '20년 후 여수' 도시구상안 시에 전달

시, 도시기본계획 등에 참고

여수시는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이 제안한 미래상을 토대로 연내 도시기본계획 장기비전과 발전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은 열띤 토론을 거쳐 도출한 여수 미래상과 분야별 미래목표, 추진전략·과제를 여수시에 전달했다. 〈사진〉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은 여수시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20일 발대했다.

여수시민 55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도시·주택, 문화·관광, 교육·복지·경제, 교통·환경·안전 등 4개 분과로 나눠 20년 후 도시미래상 설정과 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 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참여해 계획단의 의견을 조율하고 토론을 이끌었다.

시는 '시민계획단'이 제안한 미래상을 토대로 도시기본계획 장기비전과 발전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남북 교류협력사업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계획정비와 관광휴양도시에 걸맞은 생활권도 재설정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

여수시 내달 14일까지

여수시가 다음달 14일까지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보를 위해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특별단속은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주선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민원 다수 유발 업체, 최근 운송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 양수양도가 빈번한 업체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등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다. 시는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